

세계경제침체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충격

박 형 중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때문에 미국의 패권은 취약해질 전망이다. 그러면 반미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강성해지는가? 대답은 동반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지구화된 경제관계의 역설 때문이다. 대표적인 반미 국가는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이다. 물론 북한도 여기에 빼놓을 수 없다.

앞의 세 나라는 모두 원유 수출 국가이다. 이 나라들은 국제원유가격이 2002년 24달러 수준에서 2008년 7월 140달러 수준으로 치솟는 동안, 급증하는 달러보유액을 기반으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데 앞장섰다.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미세력과 국가를 규합하는데 몰두했다. 이란은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슬람세계의 지도국가로 부상하고자 했으며, 원유달러를 이용하여 핵 개발에 대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에 맞섰다. 러시아는 원유달러를 기반으로 과거 위상의 일부를 되찾았다. 러시아는 군사력을 재구축하기 시작했고,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구 소련 제국에 침투한 서방세력에 압박을 가했다.

그런데 세 나라는 원유가격의 폭락이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 지난 7월경 140달러 선의 국제가격은 3개월만인 10월 중순에 들어 50달러 선까지 초고속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세 나라 모두 원유가격이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 나라 모두 지나치게 원유수출 의존적이어서 경제구조가 취약한데다, 방만한 보조금에 기반한 내부경제 운영과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 나라 모두 정부지출 삭감과 경제침체에 따른 대내정치 불안정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처지도 이들 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경제도 지난 시기 세계경제 호황으로부터 큰 이득을 보았다. 나아가 이미 시작된 세계경제침체는 북한경제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북한의 수출은 세계원자재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세계원자재 가격은 국제경제 호조에 따라 2001년 10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어 미국(소비시장)과 중국(세계공장)이 동시 경제호황을 누리는 2004~2008년 동안 원자재 가격은 급상승했다. 우연이 아니게 북한의 수출은 2004년 전년대비 31.4%, 특히 대중국 수출은 148.2%의 급등 신장세의 증가를 보여준다. 이 시기 중국의 대북한 투자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 동안 북한의 수출구조가 크게 변화한다. 광물성 생산품(무연탄 등) 수출 비중은 2002년 9.5%에서 2007년 38.0%로, 비금속제품(철강, 동, 아연, 니켈)의 수출 비중은 2002년 7.8%에서 2007년 16.9%로 증가한다. 즉 두 제품군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17.3%에서 64.9%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두 물자의 수출은 금액상으로 각 5배와 2.5배 증가했다. 반면 과거 주력업종이던 동물성생산물(수산물, 어패류), 섬유류, 기계전기전자의 수출 비중과 절대금액은 현저하게 하락한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02년 25.4%에서 2007년 41.7%로 상승했다.

이처럼 북한경제는 2002~2007년 동안 대중국 광물성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왔다. 따라서 만약 중국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광물성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북한경제는 수출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년의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를 경험할 것이며, 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의 경기도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7년 11.9%, 2008년 9.7% 성장에 이어 2009년 8.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이미 9월 금융위기 발생 전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원유가격이 7월의 140달러대에서 10월 50달러 대로 떨어졌고, 구리, 니켈,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불행은 반미국가에게도 타격이다. 미국경제가 흥할 때, 반미국가들의 경제도 흥했다. 양 진영은 강력한 경제기반을 배경으로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으로 대처했다. 그런데 미국경제가 약화될 때, 반미국가들의 경제도 동시에 약화된다. 이 경우, 미국과 반미 국가는 공히 경제능력 저하 때문에 외교정책에서 보다 현실주의적 타협을 모색할 수도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북한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2002~2008년 사이 북한 경제의 상황은 세계경기 호조의 상당한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북한경제는 세계경제와 중국경제 침체에 따른 광물 원자재의 가격하락과 수출부진이라는 심각한 외부 충격을 맞게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광물자원 투자를 비롯하여 북한에 대한 외국 투자 위축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두가 보다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을 펴게 된다면, 이는 한국,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